

파꽃에서 찾은 자유를 향한 빛의 향연

최향 개인전 '파꽃 -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

14~23일 광주 동구 이화갤러리
지난 5년간 작업한 20여점 전시
"반세기 미술인생 되짚는 자리"

반세기 간 미술 작업에 몰두해 온 작가 최향.

지난 1999년부터 파꽃에 매료된 그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와 색깔로 이를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향 작가의 33번째 개인전 '파꽃 -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가 오는 14~23일 광주 동구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2020년 향담갤러리에서 선보였던 개인전 이후 5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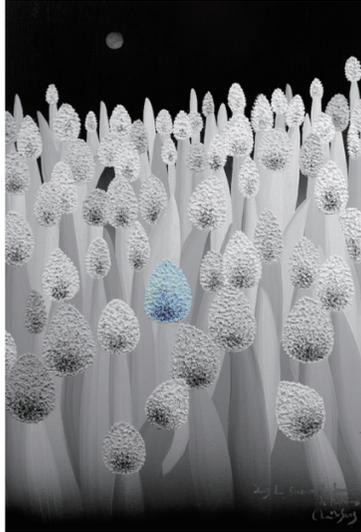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그가 지난 2021년부터 작업한 파꽃 연작 2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어두운 밤, 하얀 파꽃이 가득 피어 있는 풍경은 최 작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영감을 선사했다. 하얀 꽃잎과 더없이 조화롭게 이뤄진 대지가 피워내는 빛의 향연은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이 듯이 강렬했다. 우울할 때나, 슬플 때 어둠을 밝히는 파꽃의 상서로운 환희는 작가가 수십년간 몰두할 시각적 인상을 남겼다.

파꽃은 이렇게 작가의 삶에 있어 원동력이 됐고 이번 전시 현장을 가득 메울 작품들도 붓으로 펼쳐낸 그의 파꽃여행 일부인 셈이다.

작품 곳곳에는 내밀한 정신적 사유가 깔려 있다. 파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거나 자유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이는 파꽃에서 받은 직접적 영감과 동시에 '자유'가 주는 의미의 다양성을 포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적 감각도 뛰어나다. 파스텔 톤으로 표현된 파꽃 연작은 조형적인 측면으로



최향 연작 '파꽃 -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

이화갤러리 제공

도, 회화적으로도 그 정교함이 서려 있다.

전시 주제인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는 작가가 파꽃을 통해 깨달은 삶의 본질과

자유를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서 절정(絶頂)을 상징한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다다른 후 스스로 쇠락의 길을 떠나지만, 곧 열매로 환생하게 된다. 반면 '파'의 꽃은 온갖 역경을 거쳐 성장한 후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남기면 생명을 다하게 된다. 결국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남겨 생을 잇게 하는 고귀한 희생인 셈이다. 파꽃의 꽃말이 '인내'인 것 또한 희생을 뜻한다.

작가는 이러한 파꽃을 매개로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예술적 자유를 작품에 투영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그간 32번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최 작가가 파꽃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취리히 아트페어부터였으며, 2008년 진화랑 초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파꽃은 '인내'를 상징하는 꽃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자유로움'을 찾

려는 깊은 사유를 드러냈다.

작품에서 최 작가는 나이프를 사용해 물감을 찍어내는 독창적인 기법을 활용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현된 그의 작업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예술적 행위로서의 깊은 내면적 자유와 고귀함을 향한 갈망을 나타낸다.

최 작가는 "올해는 대학 졸업 50년이 된 해이자 나이 여든을 향해 가는 시기다. 현재까지 펼쳐온 미술세계와 인생에 대해 여러 고민과 감정을 느끼는 시점"이라며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이번 전시 작업을 하며 긍정적 기운을 받게 됐다. 특히 앞서 열린 서울 전시에서 많은 분들이 작품의 독창성에 대해 좋은 반응과 격려를 보내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파꽃 -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는 앞서 지난달 5~11일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바 있다. 동명의 전시가 이번 광주에서 순회전 형식으로 선보이며 구성된 작품은 일부 판매된 작품을 제외하면 큰 차이는 없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AI 피아노·작곡가와 인간의 협연

제7회 인공지능 융합콘서트

26일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
안창욱 GIST 교수 초청 등

인공지능(AI)과 예술을 융합한 특별한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본관 1층 상상홀에서 '제7회 인공지능 융합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를 예술가의 융합 공연, 강연, 체험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1부 행사는 봄을 주제로 AI 작곡가 '이봄(EvoM)'이 작곡한 곡을 AI 피아노 '인피니아(INFINIA)'와 대금 AI 공연가 '예담'이 협연하는 무대로 꾸민다.

2부 행사에서는 AI 작곡가 '이봄

(EvoM)'의 개발자이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인 안창욱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의 탄생과 진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선보인다.

이어 3부 행사는 1부 무대에서 인간과 협연을 펼친 AI 피아노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현승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선임연구원은 "AI 작곡가 이봄(EvoM)과 AI 피아노 인피니아(INFINIA)를 통해 최신 기술로 구현한 창의성을 경험하고 발전 방향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7회 인공지능 융합콘서트 참가비는 1000원이며,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선착순 150명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기득권 비판한 고전 문제작 광주서 재연

명작 시리즈 '위선자 타르튀프'
광주시립극단 제24회 정기공연
24~2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1664년 초연한 '타르튀프'는 당대 기득권 세력인 성직자들과 귀족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연이 전면 금지됐던 작품이다.

작품은 긴 소송 끝에 1669년 공연 허가를 받고 재연해 큰 성공을 거뒀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광주시립극단은 명작 시리즈 일환으로 '위선자 타르튀프'를 제작해 선보인다.

광주시립극단 제24회 정기공연 '위선자 타르튀프'가 24~2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프랑스의 위대한 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작으로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희극적인 상황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



은 관객들에게 현대 사회의 거울로도 비칠 전망이다.

광주시립극단은 고전 명작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고전 명작 발굴 및

주요 고전의 레퍼토리를 추진하며 양질의 공연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선자 타르튀프'를 통해 시민들께 통쾌한 웃음을 선사해 드리고 싶다"며 "현재도 존재하는 위선자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13세(중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러닝타임은 100분이다. 관람료는 S석 2만원, A석 1만원.

박찬 기자

"진도와 남미 아우른 민속탐험 떠나보자"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16일 오후 진도 옥주골 창작소
박명화 강의 등 다채로운 무대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6일 진도에 위치한 옥주골 창작소에서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선보인다.

2일 국립남도국악원에 따르면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공연은 오는 6월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총 8회에 걸쳐 펼쳐진다.

이번 상반기 무대는 전문가와 유명인사 등을 초청해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 형태로 개편된다.

오는 16일 무대는 박명화 작가가 강의자로 나서 '리듬 속 단맛: 진도와

남미의 민속탐험, 진도와 남미의 민속 댄스 이야기'를 주제로 선보인다.

박 작가는 중남미 스토리텔러이자, 경향신문 출판사진국 기자 출신이다.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인 사진작가인 그는 지속적으로 중남미를 방문하며 현지의 문화와 이야기를 국내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 작가가 이번 공연을 통해 남미의 사랑수수 재배와 독특한 민속문화를 한국의 옛기름과 쌀로 단맛을 낸 엿과 교차시켜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 남미의 북놀이와 한국의 진도북놀이를 비교해 두 지역의 전통음악과 춤을 살펴보고, 남미와 진도의 노동요 이야기를 통해 각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중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제공

하는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전남무형유산 조도달배노래 보유자 조오환의 '옛타령'과 진도민속문화예술단의 박소심, 정기자의 진도의 토속민요를 함께 선보인다.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 이수자이자 진도민속문화예술단 단원인 고미경의 '북춤'도 선배 공연을 더욱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미취학 아동은 입장이 제한된다. 공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30명까지 전화로만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061-540-4038)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공예미술관 보임첸, '공예로 같이-가치' 참여작가 모집

전남문화재단 창작공간지원사업
창작공간-제작비-전시 등 지원
3명 모집...11일까지 이메일 접수

다양 공예미술관 보임첸에서 '공예로 같이-가치'에 참여할 작가 3인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2025 창작공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예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선정 작가에게는 △창작 공간 △제작비 △개인전 개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 전문가 멘토링과 지역 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공예 작가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공 작가도 모집한다. 공예와 디자인이라는 서로 다른 창작 장르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예미술관 보임첸 관계자는 "이번 사

업을 통해 전남에서 활동하거나 인연을 맺고 싶은 작가들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창작 시작부터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까지이며 공예미술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이메일(artbaumchen@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찬 기자